

청소년의 긍정심리 자본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

정효정,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The impact of adolescen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ies -Mediating effect of grit-

Hyo Jung Jung, Sung Je Cho*
Division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긍정심리 자본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및 그릿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시에 위치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응답을 누락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자 15명을 제외한 총 125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 자본 하위요인 중에서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이 역할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심리 자본 하위요인 중에서 회복탄력성은 관계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심리 자본 하위요인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표현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그릿의 매개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 그릿은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심리 자본이 그릿을 통해 대인관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긍정심리 자본, 그릿, 대인관계성향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인성교육이나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생활 적응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sought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adolescents o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ie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For this purpose,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administered to 14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located in S City, and data from a total of 125 people were analyzed, excluding 15 who omitted answering some questions or responded insincerel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ub-factors, self-efficacy, and resilienc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role orientat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mong the sub-factors, resilienc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relationship tendencies. Additionally, among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ub-factors,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influence on expressiveness. Seco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on the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ies confirmed that gri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ese results imply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ffec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ies through gri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an help develop the character or psychological education programs of the youth and improve their ability to adapt to school life by confir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grit, and interpersonal tendencies.

Keywords : Adolescen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Grit,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ies,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Sung-Je Ch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email: chosj715@daum.net

Received January 24, 2024

Accepted March 8, 2024

Revised February 14, 2024

Published March 31, 2024

1.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는 전환기로, 이때의 성장은 신체를 비롯하여 심리적 발달, 그리고 대인 관계가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중에서 대인 관계는 사회적 적응력을 길러야 하는 발달과업으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부모나 교사 그리고 학교 교우로부터 원활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1]. 또한 청소년의 대인 관계 스트레스(가족, 친구, 교사)는 자살 생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특히 청소년들의 대인 관계성향이 그들의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계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다[3].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성향은 발달과업에 중요한 변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에 중요한 변인인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인관계성향은 “청소년이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타인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 그는 타인이 무슨 행위 또는 무슨 생각을 하기를 기대하는가, 그는 타인의 행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등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을 의미한다[4]. 대인관계성향의 평가 기준 및 효과성의 지표로 역할성향, 관계성향, 표현성향으로 구분된다[5].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체육활동 참여동기와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6,7], 인터넷 중독 여부와 대면 대인관계성향의 차이에 관한 연구[8],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 수준 및 대인관계성향과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9]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보면, 체육활동 참여동기, 인터넷 중독, 그리고 심리적 분리 수준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 하지만 청소년의 긍정심리 자본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긍정심리 자본이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된다.

긍정심리 자본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관심이 고조되는 심리적 요인으로, 청소년의 긍정심리 자본은 학교 생활 적응과 학교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10], 긍정심리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긍정심리 자본과 대인관계성향을 파악하여, 대인관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긍정심리 자본이란 ‘학교 교육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 이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 특성들을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심리 자원’을 의미한다[11]. 긍정심리 자본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은 대인관계 유능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12]. 또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친구나 교사 간의 대인관계를 향상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13]. 특히 대학생들의 긍정심리 자본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회복력, 자기효능감, 희망이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14].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인관계능력 및 유연성을 잘 이루어지기 위해 긍정심리 자본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에 긍정심리 자본이 중요한 변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대인관계성향에는 그릿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이유는 대인관계성향을 향상하는 방안은 그릿이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되고 있다[15]. 그릿이란 “개인의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과 인내”이며, 대학생활 적응과 그릿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16]. 한편 위기청소년의 그릿은 대인관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7]. 특히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 적응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청소년들이 긍정심리자본이 학교생활 적응과 대인관계(친구관계, 교사관계)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긍정심리 자본, 그릿, 그리고 대인관계성향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긍정심리 자본과 학교생활 적응, 학교 행복감,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된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 그릿, 그리고 대인관계성향 간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긍정심리 자본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및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청소년의 긍정심리 자본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청소년의 긍정심리 자본과 대인관계성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3년 9월 4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 S시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를 하기 전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알기 쉽게 설명한 후 자기 기입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구 자료는 총 140부 중 불성실한 답변 15부를 제외하고 125부를 연구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4문항, 긍정심리 자본 15문항, 그릿 8문항, 대인관계성향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나이, 학력, 가족 구조로 구성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측정용 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다.

2.2.1 긍정심리 자본 척도

긍정심리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Luthans(2004)가 척도를 개발하였고, 콰미아[11] 연구에서 적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낙관주의(4문항), 자기효능감(4문항), 회복탄력성(3문항), 희망(4문항)으로 총 15문항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 자본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존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자기효능감 .88, 희망 .84, 낙관주의 .79, 복원력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4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자기효능감 .869, 희망 .791, 낙관주의 .835, 복원력 .739로 나타났다.

2.2.2 그릿 척도

그릿을 측정하기 위하여 Duckworth(2006)가 개발한 측정 도구를 고용자[18] 연구에서 적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흥미유지(4문항), 노력지속(4문항)의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되어 있으며, 부정적 질문의 문항은 역코딩을 하였다(1번, 2번, 3번, 4번).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기존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707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흥미유지가 .668, 노력지속의 신뢰도는 .74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745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흥미유지 .697, 노력지속 .742로 나타났다.

2.2.3 대인관계성향 척도

대인관계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Lary의 대인관계 행동모형, Schutz의 FIRO(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Krech 외가 밝힌 대인적 반응 특성을 참조하여 안범희(1984)가 재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김정원(2003)이 수정한 것을 박금숙[5]이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역할성향 4문항, 관계성향 7문항, 표현성향 6문항 등 총 17문항이다. Likert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질문의 문항은 역코딩을 하였다(12번, 13번, 16번, 17번).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성향의 정도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기존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0.829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역할성향은 0.630, 관계성향은 0.816, 표현성향은 0.66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70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역할성향은 .691, 관계성향은 .688, 표현성향은 .634로 나타났다.

2.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 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s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심리자본, 그릿, 대인관계성향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청소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n key variables

Sortation		Frequency	%
gender	man	60	48.0
	woman	65	52.0
Grade	Lower	36	28.8
	Middle	38	30.4
	High	51	40.8
School Type	Humanities High School	61	48.8
	Business High School	23	18.4
	middle school	41	32.8
Family Structure	Adoptive Parent Families	107	85.6
	Other	18	14.4
Total		125	100.0

성별은 ‘남성’이 48.0%, ‘여성’이 52.0%이었고, 성적은 ‘하’가 28.8%, ‘중’이 30.4%, ‘상’이 40.8%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 ‘인문고’가 48.8%, ‘실업고’가 18.8%, ‘중학교’가 32.8%, ‘가족구성’은 ‘양부모 가족’이 85.6%, ‘기타’가 14.4% 순으로 조사되었다.

3.2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긍정심리 자본에서는 낙관주의가 3.43으로 가장 높았고, 회복탄력성, 희망, 자기효능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성향에서는 관계성향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표현성향, 역할성향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릿에서는 흥미유지가 노력지속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왜도는 첨도값은 기준값을 만족하여 변수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measurement variables

Sortation	N	Mean	SD	Skewness	Kurtosis
Optimism	125	3.43	.85	-.47	.28
self-efficacy	125	3.07	.79	-.17	.24
resilience	125	3.32	.81	-.16	-.20
hope	125	3.27	.76	.33	-.40
Role Orientation	125	3.20	.81	-.29	-.21
Relationship Personality	125	3.38	.62	-.78	1.69
Expression Personality	125	3.25	.65	-.25	1.00
Keep interested	125	3.09	.77	-.38	.27
keep trying	125	3.04	.84	.00	.33

3.3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of Measurement Variables

Sortation	O	S	R	H	R.O	R.P	E.P	K.I	K.T
O	1								
S	.485***	1							
R	.376***	.364***	1						
H	.600***	.570***	.385***	1					
R.O	.345***	.348***	.408***	.242***	1				
R.P	.278**	.232**	.309***	.290**	.537***	1			
E.P	.266**	.315***	.283***	.214*	.575***	.443***	1		
K.I	.180*	.417***	.345***	.240*	.387***	.284**	.319***	1	
k.T	.356***	.267**	.472***	.205*	.520***	.325***	.474***	.450***	1

O: Optimism, S: self-efficacy, R: resilience, H: hope, R.O: Role Orientation, R.P: Relationship Personality, E.P: Expression Personality, K.I: Keep interested, K.T: keep trying

*p<.05, **p<.01, ***p<.001

긍정심리자본, 대인관계성향, 그릿의 하위변수 간에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r=0.180-0.600$). 변수 간의 관계는 본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별 타당성이 있다.

3.4 청소년의 긍정심리 자본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첫째, 긍정심리자본이 대인관계성향 하위요인 중에서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role Role Propensity

model	N.C		N.F	t	p	C.I.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1.306	.348		3.752	.000			
R.O	O	.187	.098	.198	1.909	.059	.593	1.686
	S	.210	.103	.205	2.035*	.044	.628	1.593
	R	.299	.089	.301	3.373**	.001	.799	1.251
	H	-.116	.117	-.109	-.995	.322	.528	1.895

R²=.236, Adj R Square=.210, F=9.264***, D-W=1.974

N.C:Non-standardized coefficients, N.F: Normalization Factor, C.I. S: Common lineity statistic, R.O: Role Orientation, O: Optimism, S: self-efficacy, R: resilience, H: hope

*p<.05, **p<.01,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1.0%로 나타났고, F=9.264로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공차값은 0.1 이상, VIF 값은 10.0 이하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D-W=1.974로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t=2.035, p<0.05), 회복탄력성(t=3.373, p<0.01)이 역할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긍정심리 자본의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성향 하위요인 중에서 역할성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이 대인관계성향 하위요인 중에서 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Relational Propensity

model	N.C		N. F	t	p	C.I.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2.164	.285		7.605	.000		
R. P							
O	.079	.080	.108	.981	.329	.593	1.686
S	.025	.084	.032	.296	.767	.628	1.593
R	.159	.072	.208	2.199*	.030	.799	1.251
H	.104	.095	.127	1.089	.279	.528	1.895

R²=.139, Adj R Square=.110, F=4.829***, D-W=1.231

N.C:Non-standardized coefficients, N.F: Normalization Factor, C.I. S: Common lineity statistic, R.P:Relationship Personality, O: Optimism, S: self-efficacy, R: resilience, H: hope

*p<.05,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1.0%로 나타났고, F=4.829로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공차값은 0.1 이상, VIF 값은 10.0 이하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D-W=1.231로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회복탄력성(t=2.199, p<0.05)이 관계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긍정심리자본이 대인관계성향 하위요인 중에서 표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1.3%로 나타났고, F=4.937로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공차값은 0.1 이상, VIF 값은 10.0 이하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D-W=1.504로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t=2.079, p<0.05)이 표현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Expressive Propensity

model	N.C		N. F	t	p	C.I.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2.046	.299		6.847	.000		
E							
O	.096	.084	.126	1.143	.255	.593	1.686
S	.184	.088	.222	2.079*	.040	.628	1.593
R	.142	.076	.176	1.865	.065	.799	1.251
H	-.048	.100	-.056	-.481	.631	.528	1.895

R²=.141, Adj R Square=.113, F=4.937***, D-W=1.504

N.C:Non-standardized coefficients, N.F: Normalization Factor, C.I. S: Common lineity statistic, E:Expressiveness, O: Optimism, S: self-efficacy, R: resilience, H: hope

*p<.05, ***p<.001

3.5 청소년의 긍정심리 자본과 대인관계성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긍정심리자본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매개효과가 존재하기 위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첫째, 긍정심리자본은 그릿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긍정심리자본은 대인관계성향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그릿은 대인관계성향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하며, 긍정심리자본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완전 매개효과, 긍정심리자본의 영향이 2단계보다 감소하면서 영향을 미치면 부분매개효과라 한다.

1단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은 그릿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t=5.692, p<0.001), 2단계에서 긍정심리

Table 7.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on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Interpersonal Disposition

model	N.C		N. F	t	p	C.I.S	p
	B	SE	β				
G							
(constant)	1.416	.296		.208	32.399	4.791	.000
P.P.C	.505	.089	.457	(.202)	***	5.692***	.000
I.C							
(constant)	1.867	.246		.218	34.235	7.599	.000
P.P.C	.432	.074	.467	(.211)	***	5.851***	.000
I.C							
(constant)	1.351	.241		.368	35.546	5.593	.000
P.P.C	.248	.075	.268	(.358)	***	3.308**	.001
Grit	.364	.068	.436			5.390***	.000

N.C:Non-standardized coefficients, N.F: Normalization Factor, C.I. S: Common lineity statistic, G:Grit, I.C: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P.P.C: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bel test : z=3.894***, **p<.01, ***p<.001

자본은 대인관계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t=5.851, p<0.001$). 3단계에서 그릿은 대인관계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t=5.390, p<0.001$), 긍정심리 자본은 대인관계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t=3.308, p<0.01$). 그리고 긍정심리자본의 영향력이 0.268이 2단계인 0.467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Sobel test에서도 $z=3.89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릿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및 긍정심리자본과 대인관계성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이 대인관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이 보였다. 이 의미는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역활성향, 관계성향, 표현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13,14]. 이러한 결과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대인관계를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9,10]. 또한 대인관계성향에 직접적인 효과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으로 검증이 되었다[19,20]는 연구 결과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고, 긍정심리 자본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이러한 청소년 학생생활적응력 증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릿의 매개효과에 관한 분석결과, 그릿은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의미는 긍정심리자본이 그릿에 의해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10,15-17].

이러한 결과는 그릿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청소년 긍정적 심리요인(마음 챙김)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는 연구[15]가 지지하였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그릿은 대인관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7]는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변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기 위해 긍정심리 자본과 그릿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이러한 방안 모색을 제시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은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이들의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기 위한 긍정심리자본 증진에 대한 인성교육이나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에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의 그릿을 통해 대인관계성향을 증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위해 그릿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S시에 소재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임의 표본집단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표본 지역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한 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을 개선 위하여 긍정심리 자본 요인과 그릿 요인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 [1] W. S. Lim, H. S. Choi,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on Juvenile Delinqu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Vol.12, No.3, pp.147-170, 2010.
<https://www.riss.kr/link?id=A82570492>
- [2] Y. H. Sin, S. Y. Park, "Effects of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on Suicidal Ideation: Examination of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Vol.18, No.1, pp.235-259, 2016.
<https://www.riss.kr/link?id=A101833985>
- [3] W. J. Kang,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on Social Development of Hearing Impaired Adolescent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13, No.3, pp.143-161, 2011.
<https://www.riss.kr/link?id=A82676866>
- [4] K.H.Lee, *Analysis of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and self-efficiency on the trends of personal relationship : verification of parametric effects of appearance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Anyang, Korea, pp.5-6, 2011.
<https://www.riss.kr/link?id=T12334392>
- [5] K. S. 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ir Experience in Bullying or Being Bullied-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Anyang, Korea, pp.46-47, 2015.
<https://www.riss.kr/link?id=T13771239>
- [6] D. S. Ko, I. W. Kang, "The Influence of Participating Motivation on Self Efficacy, Class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mong Cultural Physical Educa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0, No.36, pp.943-954, 2009.
<https://www.riss.kr/link?id=A100578208>
- [7] K. J. Kim,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Motiv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rientation and Exercise Adherence of Participants in Sport for All",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53, No.1, pp.289-297, 2014.
<https://www.riss.kr/link?id=A106551563>
- [8] G. U. Kim, M. S. Yu, J. H. Lee,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on On-line and Off-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5, No.2, pp.109-120, 2004.
<https://www.riss.kr/link?id=A102953713>
- [9] S. H. Kim, J. W. Kim,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Separation,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and Socia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8, No.2, pp.83-97, 2004.
<https://www.riss.kr/link?id=A102749888>
- [10] S. C. Shin, S.Y. Choi, "The Effects of Adolescen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School Life Adjustment and School Happiness", *Journal of Youth Counseling Association*, Vol.3, No.4, pp.95-112, 2022.
<https://www.riss.kr/link?id=A108423131>
- [11] M. A. Gwak, *An Analysis of Personality Trait,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Capacity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pp. pp.75-76, 2022.
<https://www.riss.kr/link?id=T16074458>
- [12] H. S. Cho, S. B. Lee, "A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Gratitude Disposition to the Influence of Positive Psychology Capital on Happiness in Childcare Teache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4, No.5, pp.69-82, 2016.
<https://www.riss.kr/link?id=A102126248>
- [13] Hyun Go,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Effects of Parent-Child Attachment Relationship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9, pp.637-664, 2019.
<https://www.riss.kr/link?id=A106394514>
- [14] J. H. Park, K. A. Jang, M. S. Cho, "The effec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skill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0, No.6, pp.193-199, 2020.
<https://www.riss.kr/link?id=A106911812>
- [15] K. H. Jung, S. J. Cho, "Study of Grit and Interpersonal Propensity in Delinquent Adolescent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of Mindfulness-", *Journal of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4, No.4, pp.423-430, 2023.
<https://www.riss.kr/link?id=A108562415>
- [16] D. H. Hong, J. S.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sets and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7, No.1, pp.153-171, 2021.
<https://www.riss.kr/link?id=A107320304>
- [17] M. H. Kwoen, S. J. Cho, "Effects of Grit on Mindful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y of At-risk Adolescents",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9, No.2, pp.303-315, 2023.
 DOI: <http://dx.doi.org/10.47116/apicri.2023.02.25>
- [18] Y. J. Ko, *Influence of Youth After School Academy of Grit on Youth Activity Competence-The Mediating Effect of Youth Worker Trust-*,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pp.46-47, 2022.
<https://www.riss.kr/link?id=T16079763>
- [19] S. K. Dae, I. W. Kang, "The Influence of Participating Motivation on Self Efficacy, Class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mong Cultural Physical Educa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0, No.36, pp.943-954, 2009.
<https://www.riss.kr/link?id=A100578208>
- [20] J. H. Choi, H. S.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recovering elastic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of school life in University Elective Dance",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Vol.24, No.4, pp.1105-1120, 2015.
<https://www.riss.kr/link?id=A101444085>

정 효 정(Hyo-Jung Jung)

[정회원]



- 2016년 2월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 석사)
- 2023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교육학, 사회복지, 청소년지도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데이터베이스전공 (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콘텐츠, 교육학, 데이터베이스